

대한상의 브리프

국제금융센터 이상원 부전문위원



제122호 2020년 5월 11일

편집자주 코로나19는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질 모습을 전망하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변화와 전망

대공황급 충격에 버금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제 경제·금융·사회 등 정세(Situation)가 재편되는(Reshaping)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해외 분석기관과 석학들도 코로나19 이전(BC : Before Corona)과 이후(AC : After Corona)의 세계가 구분될 것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은 코로나19 사태를 Globalization 1.0과 2.0시대를 나누는 'Chapter Break'로 규정했고, 맥킨지(McKinsey & Co.)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가 'Next Normal'에 진입할 것으로 평가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 대격변이 수 대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와 짐 크래머 CNBC 진행자의 경우 봉쇄(Lockdown)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이전상태(Old Normal)로 회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전망

① 분절된 세계(Schism)

코로나19로 세계화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생산지의 본국 회귀(Reshoring) ▲유럽 내 균열 ▲미·중간 무한경쟁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망 배치에 있어 30년 전에는 비용(원가)을 우선 시했으나 미·중 통상분쟁,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리스크와 회복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미래(Post-viral era) 전망]

테마	종전	미래
 분절된 세계(Schism)	① Global Value Chain ② 유럽 정치·경제 통합 추구 ③ 미·중 협력 강조	① Domestic Value Chain ② EU 결속력 약화 ③ 미·중 전방위 충돌
 경제·금융 구심점 이동	① 달러 주도 국제금융 질서 ② 세계경제 중심축 서구 편중	① 달러 패권 위협 ② 서구 위상 약화(아시아 부상)
 소비·투자 행태 변화	① 전자상거래 중심 온라인 활동 ② 합리적 소비 중시	① 재택근무 원격진료 등 비대면 확대 ② 가성비 추구, 위험회피
 사회취약성 표면화	① 잠재 불평등 누적 ② 타인종·종교 차별 배격	① 불평등 표출 ② 타인종·종교 혐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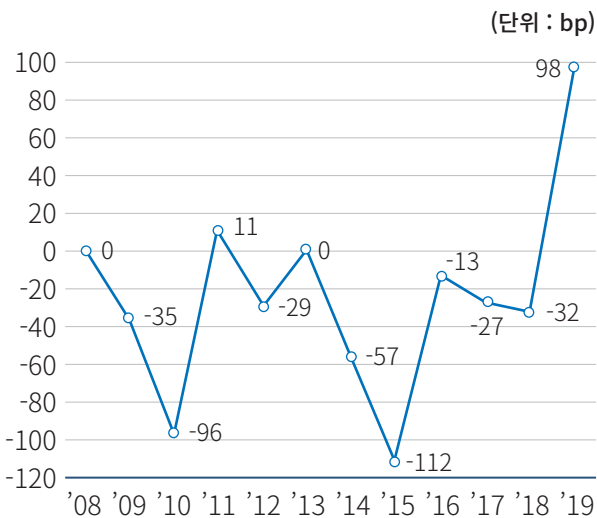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자국 내 가치사슬(Domestic Value Chain)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등 선진국의 Reshoring 가속화 시 베트남 등 미·중 통상분쟁 수혜국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 제조업체의 리쇼어링지수]



코로나19 사태로 유럽의 자유왕래(셱겐조약)가 무력화되고, 역내 공동채권(Coronabond) 도입에 대한 입장 차가 첨예해 EU의 정치·경제적 결속력이 약화될 소지가 크다. 그간 유럽 통합을 적극 옹호해온 독일이 자국이 이익 수호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부채 및 은행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이 유로존 분열의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다.

미·중 관계 악화도 우려된다. 미·중이 국내 여론을 의식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 간의 충돌이 기존 교역에서 기술·군사·사이버(체제)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경제 금융 구심점 이동

미국 내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달러의 국제적 위상 약화 ▲서구의 영향력 축소 시작을 알리는 'Tipping Point'라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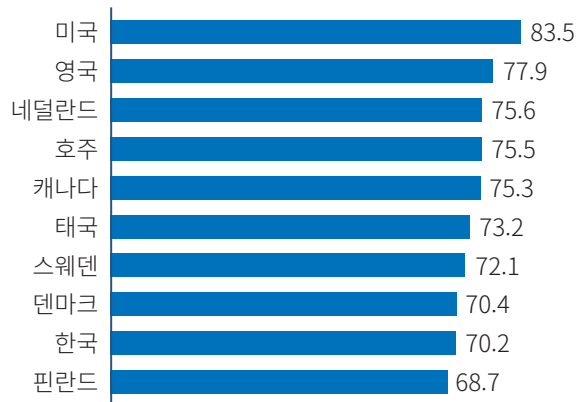
미국이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달러가 과잉 공급되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부채 증가가 달러의 신뢰 약화로 연결되는 현대판 트리핀 딜레마*(Modern-day Triffin Dilemma)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맥킨지 등이 서구에 치우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팬데믹에 잘 준비된 국가로 꼽힌 상위 5개국(美·英·和·濠·加)이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아시아가 역동성과 민첩함을 바탕으로 빠른 회복력이 기대되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에피데믹 팬데믹에 잘 준비된 10개국]

(최고수준 = 100)



※ 출처 : 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2019.11.)

* 트리핀 딜레마 : 미국이 재정적자를 우려해 달러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반대로 과잉 달러 공급이 지속되면 달러 가치의 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상을 말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설명으로서 1959년 예일대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 교수가 처음 제기했다.

③ 소비 투자행태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더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Untact) 활동이 일상화되고 ▲소비·투자 관행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활동의 범위가 재택근무, 원격진료 교육 등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 결과 주요국들 간 디지털 결제(Digital Currency) 및 통상(Digital Trade)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세계적 보건위기(Global Health Crisis)가 수입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해 미래 충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구매판단 시 **가격대비 소비 만족감을 중시하고 이전세대보다 재정적 위험부담을 꺼리는(financially risk-averse)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④ 사회취약성 표면화

코로나19 확산 속에 경제적 타격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잠재된 ▲구조적 불평등 표출 ▲타인종과 종교에 대한 혐오 증가**로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비대면 근무가 힘든 저임금 서비스직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내부 갈등을 자극할 것**이다.

한편 초기에 서구에서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 논란이 시작되고 최근에 중국·인도 등에서 특정 인종(흑인) 및 종교(이슬람) 혐오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

변화에 발맞춘 능동적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중요

레이 달리오(Ray Dalio)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회장은 **전 세계적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3~5년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중장기에 걸쳐 다방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Every man for himself)을 모색하면서 국제정세가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분석기관 등도 **정치·경제적 보호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 공장 강화, 비대면 업무 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강화 등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가 필수적 이란 사실을 재인식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코로나19 이후를 도약의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본격 도래할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 인프라 결함,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금보다 커지고 **디지털 격차 확대, 허위정보 유통 속도 증가** 등이 사회불안을 자극할 수 있음에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아담 포센(Adam Posen) 피터슨국제연구소(PIIE) 소장이 금융과 교역 측면에서 높은 달러 의존도(Over-reliant)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제금융 중심축 변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 효율성 및 활력 약화 등 변화의 부작용을 인식하게 된다면 국제공조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함께 요구된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5월 11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E)	IMF		OECD	
			2020 ^(P)	2021 ^(P)	2020 ^(P)	2021 ^(P)
한국	2.7	2.0	-1.2	3.4	2.0	2.3
세계	3.6	2.9	-3.0	5.8	2.4	3.3
미국	2.9	2.3	-5.9	4.7	1.9	2.1
중국	6.6	6.1	1.2	9.2	4.9	6.4
일본	0.8	0.7	-5.2	3.0	0.2	0.7
EU	1.9	1.2	-7.5	4.7	0.8	1.2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19.12월	'20.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76	1,164	1,194	1,220	1,225
원/엔(100엔)	1,009	996	996	1,077	1,065	1,085	1,135	1,135
원/위안	167.5	166.4	166.4	167.6	168.0	170.5	173.8	172.9
원/유로	1,276	1,299	1,299	1,306	1,294	1,302	1,350	1,332
유가(Dubai)	53.2	69.7	63.5	64.9	64.3	54.2	33.7	20.4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19.12월	'20.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2.6	1.6	0.6	3.9	-0.6	4.9	0.6	-
소매판매	1.9	4.3	2.4	4.5	1.8	-2.4	-8.0	-
설비투자	14.4	-3.6	-6.2	11.1	-4.1	15.1	9.8	-
수출	15.8	5.4	-10.4	-5.3	-6.6	3.8	-0.7	-24.3
수입	17.8	11.9	-6.0	-0.8	-5.2	1.5	0.3	-15.9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